융복합 · 재정 확충… 예비후보들 공통 화두

동국대 총장 예비후보 10명 정견 들어보니
1월 22일 총추위 3차 회의서 소견 발표 진행
고양BMC 부총장 신설 · 로터스관 건립 공약 多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제19대 총장 후보로 나선 10명의 예비 후보의 공통된 화두는 '융복합 · 재정확충' 이었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원명)는 1월 2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 대상자 10명에 대한 정견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후보들의 정견 발표는 모두 PPT로 진행됐다. 발표 시간은 1인당 20분, 질의응답 15분이 주어졌다. 발표 순서는 앞선 총추위 회의에서 추첨으로 조의연-유국현-박명호-이은기(서강대)-송일호-이상일-고유환-허남결-윤성이-김상겸 교수 순으로 정해졌다.

10명의 후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학교 발전 방안을 공약으로 담았다. 그 중에는 공통 분모도 상당히 존재했다. 건학 이념 구현이라는 공통적인 가치를 제외하면 대부분 후보들은 융복합 · 재정확충을 주요한 키워드로 내놨다.

4차산업 파고 넘을 화두 '융복합'

4차 산업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들이 제시한 것이 '융복합' 이었다. 특히 불교와 제반 학문들과의 접목을 이루려는 시도가 많았다.

'PROMISE 2019~2022' 를 비전으로 내세운 조의연 교수는 교육 · 연구 시너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연구 전진기지인 '동국융합원' 설립을 제시했다. 조의연 교수는 "동국융합원을 통해 대학원 협동과정, 학부 융복합 전공 운영, 국책 R&D 사업 수주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국현 교수는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도전적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교육기획단' 을 신설해 융합교육과 창의적 실용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명호 교수는 융합 · 공유 전공제 확대를 비롯해 학제간 통합연구 강화 · 전공 개폐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이하 BMC)를 중심으로 생명존중의 BT(Bio Technology) 특성화를 통해 불교정신 구현에 노력하겠다"며 융합연구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은기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장묘사업 등을 통한 종-학 연계 사업을 제안했다.

국내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내세운 송일호 교수는 "미래융합교육단과대학(가칭) 신설 등을 통해 동국브랜드 교육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총추위가 개최한 회의서 후보자가 정견발표를 진행하는 모습.

이상일 교수는 불교 선학을 비롯한 심리학 · 상담학 · 교육학 · 정신의학 등을 연계한 '명상융합대학원' 을 설립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교양학부 복수전공 프로그램인 '융합 · 창의 리버럴아츠 전공학부' · 대외적 위상을 고려한 '미래융합대학' 재설계 등도 제시했다.

고유환 교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위주의 대학 구조를 창의 · 융합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은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빠른 속도 변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복수 · 융합 · 협동전공 확대 및 활성화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건학 이념인 '지혜, 열림, 자비, 비움, 정진' 의 가치를 학교 경영 접목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허남결 교수는 동국대를 '글로벌 최고의 융 · 복합 인재 플랫폼' 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허남결 교수는 "융복합 창의교육센터 설립하고 AI, IoT, 빅데이터 처리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며 "불교 · 인문학 · 바이오 공학 등을 융복합화한 인공지능협업연구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100대 대학' 을 제시한 윤성이 교수는 건학이념 역량 강화 부문 중 세부 공약으로 불교 학술과 산업 간의 교각 역할을 할 수 있는 '불교산업진흥원' 운영을 약속했다. 그는 "불교산업진흥원은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관련 학과 재학생의 현장 실습 또는 취업 기획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상겸 교수는 "동국대 건학이념을 통해 창의적 융복합형 인재를 육성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포용과 융합을 넘어 학문 간의 유기적 결합과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집중하겠다"면서 "분과 학문 중심의 파편화된 교육에서 탈피해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형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양각색 재정확충 방안

또한 모든 후보들 공히 자신만의 재정확충 방안을 내놨다.

부채를 줄이거나 선택과 집중 전략을 내놓은 후보들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가 기업 등을 통한 고액 기부 유치들을 공언했다. 재임 중 재원 조성 규모도 20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다양했다. 그러다 보니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다.

고양 BMC 활용과 충무로관 리모델링, 로터스관 건립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언한 주요 공약들이었다. 고양 BMC의 경우 부총장직 신설을 통한 분권적 운영을 제언한 공약들이 가장 많았다.

이날 회의는 약 6시간 30분의 릴레이 발표 끝에 마무리됐으며, 전 과정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한편, 동국대 총추위는 1월 28일 오후 2시 본관 3층 중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1월 30일에는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를 3~5명 선출한다.

〈총추위 회의 관련 기사 차주 상보〉

봉은사 1월 29일 故백남준 조형물 제막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불자였던 故백남준 선생의 타계 13주기 추모재가 1월 29일 12시 30분 서울 봉은사에서 열렸다.

추모재는 봉은사 법왕루에서 전통천도재 형식으로 봉은사 스님들과 신도, 故백남준 선생 유가족 및 백스튜디오 대표 도로시남, 백남준을 기리는 사람들, 백남준아트센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재에 앞서 특히 백남준 선생을 기리는 문화공연으로 알렉산더 세이킨의 아코디언 공연과 봉은 국악합주단 공연도 이어졌다. 이날 추모재 백미는 백남준 선생을 기리는 조형물 제막으로 데드마스크(사후 고인 얼굴을 청동으로 본떠 만든 상)를 기본으로 야외 석조형물로 제작됐다.

한편, 봉은사는 독실한 불자인 백남준 선생과 그의 어머니가 신행활동을 이어온 사찰로 백남준 선생 입적 후 2007년부터 매년 1월 기일에 추모재를 열고 있다. 노덕현 기자


故백남준 데드마스크 조형물.

대불청, 회원 세분화 사업 나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하재길)는 1월 20일 제29 · 30대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해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대불청은 김영상 수석부회장, 이윤정 · 차지원 · 김영은 · 서재원 부회장, 한정인 사무총장을 대의원 총회를 거쳐 30대 임원진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 대불청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연령별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 청년층을 아우르는 미래그룹, 고연령층을 포괄하는 리더그룹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하재길 회장은 "만 18세 이상부터 참가가 가능해 연령제한이 없어 모든 연령대가 혼재돼 있었다"며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있다보니 세대 간 격차가 내부적으로 존재했다. 2030세대가 주축이 된 미래그룹과 4050세대가 주축이 된 중견그룹, 60대 이상으로 구성된 리더그룹으로 세분화해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제 2의 김용균' 막기 위해 힘 보탤 것"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씨의 49재를 앞둔 가운데, 조계종 스님들이 고인의 빈소를 방문, 문제 해결까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스님들은 1월 2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서 故김용균 노동자를 조문하고, 유족들과 만나 "제 2의 용균이가 나오지 않도록 종단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가족 및 故김용균사망사고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정부의 공식 입장표명까지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한 데 따라, 김 씨의 시신은 22일 충남 태안서 서울로 안치됐다. 조계종은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 故김용균 분향소서 목요일마다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27일 광화문서 고인의 넋을 기리는 49재를 지냈다. 김지원 기자

설명절, 사찰은 자비로 가득찬다

소외계층 합동차례, 생필품 전달 등 이어져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사찰이 지역민을 위한 자비나눔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 국제선센터는 2월 5일 2층 큰법당에서 설 합동차례를 개최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합동차례다. 국제선센터는 합동차례 후 설맞이 쌀나눔을 진행해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설을 앞두고 받은 10kg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합동차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실향민 등을 대상으로 사찰이 접수받은 자비의 쌀 나눔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 성흥사(회주 송월)도 교도소 재소자들의 합동차례를 1월 30일 개최한다. 군산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영산작법 보존회의 시연과 함께 재소자 합동차례와 대중공양 등이 이뤄진다.

서울 조계사도 1월 29일 설을 맞아 관음재일 떡국 나눔을 진행했다. 관음재일 기도와 함께 회향 대중이 지역 독거어르신들에게 떡국 떡이 나누는 행사였다.

조계사는 창신동 쪽방촌 150가구, 종로구 고시원 등 350여 곳, 다문화가정 100가구, 독거어르신 300가구 등 총 900가구에 1.5kg 쌀 개별포장으로 총 80kg을 전달한다.

경산 선본사는 1월 18일 설을 맞아 쌀 40kg 20포를 경산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으며, 안산 보문선원도 1월 23일 지역 저소득가정에 떡국떡 300kg 등 생필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등 자비나눔행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중이 사찰에서 즐기는 놀이 마당도 펼쳐진다. 합천 해인사는 설 명절에 스님과 함께 해인사를 방문한 대중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윷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는 2월 2~3일 '승가대학 스님과 함께 하는 설맞이 윷놀이 대회' 로 미리 사전접수 받은 불자들이 스님들과 한 팀을 이뤄 대형 윷을 날리는 대회다.

노덕현 기자

오직! 소리비교 조건만으로 초청후!

본사의 견본 염불시설로 내 염불이 편안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바꾸어지는 가장 확실한 체험후 견본 그대로 시설하는 길만이 사찰에 난무하는 불량 시설들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사가 개발한 염불전문시스템이 시중에 있을시는 1천만원 포상!

앰프 1, 스피커 2, LG데크 / USB, 무선마이크 헤드셋 2, 핀무선마이크 2 합계 4개
유선마이크 법문용 1 · 염불용 1 스탠드 포함 합계 2개 완벽시설비까지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특징: 고장난 적 없고 앰프다루기 1초

방생용 앰프 및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품격이 달라지는 소리도 구경

▣ 소리 비교 조건으로 초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소리훈련원 원장 박 청 락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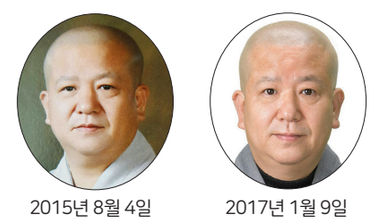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안국선원 수불큰스님의 선법을 전수 · 인가 받음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